

제3회 강진하맥축제, 드론으로 화려하게 피날레 장식

하맥축제 드론쇼와 캠핑촌으로 즐기는 3일의 축제

강진의 대표 여름축제인 강진하맥축제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하맥축제는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맥주와 다채로운 공연, 풍성한 먹거리 그리고 이색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강진군의 대표 여름 축제이다.

특히 이번 축제중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진다는 점이다. 강진 밤하늘을 무대로 강진의 축제를 형상화 한 장면들과 문구가 드론으로 강진 하늘에 펼쳐져 여름밤의 낭만과 첨단 기술이 어울러진 장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와 함께 하맥축제 무료 캠핑촌이 운영돼 체류형 즐길거리를 더한

다. 캠핑촌은 8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간 네이퍼폼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이용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텐트와 테이블, 의자, 매트 등 무료로 대여되지만 침낭은 개별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화장실 및 샤워실 등 기본 공용시설만 제공된다.

더불어 축제장 음식부스에서 판매될 메뉴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만족도 높은 먹거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작년 하맥축제 때 1만원 안팎의 품질 좋은 음식 제공돼 단 한 건의 'کمپل레인'이 없었다. 이번 하맥축제는 음식부수는 작년보다 2개소 늘린 15개소이며, 치킨, 튀김, 마른안주, 과일류, 전 등 맥



주를 마시며 떠오르는 안주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하맥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진

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이번 하맥축제는 맥주와 음악, 드론쇼, 캠핑까지 한자리에 즐길 수 있는 강진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라미"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울려 강진의 여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흥군,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 실시

황토 살포 훈련으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장흥군은 여름철 관내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조 발생 시 예찰·예보·방제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훈련은 '적조 경보 발령'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황토를 해상에 살포하는 실전 방제 절차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장흥군 해양수산과를 비롯해 해양수산과학원(장흥지원), 완도해양경찰서(회진파출소), 어촌계(7개소) 등이

참여하였다.

훈련으로 적조 확산 상황에 따른 신속한 황토 공급 및 살포, 선박 중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방제 작업, 기관별 정보 공유와 상황 전자 체계 점검 등의 과정을 현장에서 점검 수행했다. 장흥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황토 살포 실전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해양수산과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전, 어촌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진도·해남·완도·고흥·신안 5개 지역, 전복 소비 활성화를 위해 힘 모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 광장에서 전복 판촉 및 수산물 홍보

진도군은 지난 8월 13일(수)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전복 소비 촉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도, 해남, 완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지원 국회의원의 주도하에 전라남도와 수협중앙회가 주관해 전복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박지원 국회의원, 김

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회 의원, 해남군수, 완도군수, 신안군수, 고흥군 부군수, 수협중앙회 임원, 각 지자체의 수협조합장 및 전복협회장 등이 있으며, 전복과 지역 특산물을 함께 홍보해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의 폐사 위

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양식 어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복 소비 촉진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진도군에서는 활전복, 전복찜, 전복장, 전복미역국, 전복죽, 건전복 등 전복 가공

식품을 홍보하고, 진도 전복찜 시식 행사를 진행해 전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전복 소비 촉진에 참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양식 어가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도군에서 최근에 홍보대사로 위촉한 최예진 배우가 참여해 아름다운 보배섬 진도군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전복과 수산물 등을 홍보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군 생활지원사, 치매관리 전문가로 거듭나다

담양군, 치매역량강화 교육 추진... 현장 돌봄 역량 강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2일 메니노인전문요양원에서 소속 생활지원사 50명을 대상으로 치매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지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돌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동산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희동 교수가 맡아 ▲치매의 원인과 진행 과정 ▲단계별 관리 방법 ▲돌봄자를 위한 관리 전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어르신의 상태에 맞춘 돌

봄과 치매 검진·치료·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교육을 수료한 생활지원사들은 앞으로 대상자의 인지 건강을 면밀히 살피고,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검진 및 돌봄 연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곁에서 가장 가까이 돌봄을 실천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농촌살이 체험, 곡성에서 답을 찾다!

곡성군, 전남에서 살아보기 2기 추진... 3개월간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2기)'을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참가자가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실습, 교육, 일자리 체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기에는 강빛마을, 가정마을,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 3개 마을에서 총 11가구 14명이 선정됐다. 마을별로 강빛마을과 가정마을은 각 4가구 5명, 귀농귀촌협의회는 3가구 4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지난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했으며, 각 마을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곡성군 1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군은 참가자 1인당 매월 연수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마을에는 마을 인센티브,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담 멘토 수당 등을 지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짧지만 밀도 있는 농촌 체험 경험을 통해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곡성군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1기 참여자 14명 중 강빛마을 2명, 가정마을 2명, 귀농귀촌협의회 3명이 곡성군 전입을 확정하거나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061-362-2371)로 연락하면 된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양시, 2025 '매돌티콘' 공모전 개최

'매돌이' 활용한 창의적 이모티콘 발굴 나서

광양시는 8월 14일, 대표 캐릭터 '매돌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5 광양시 매돌티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매돌이의 특징과 성격을 반영한 2D 일러스트 1세트(12종)를 제작·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일상 속 감정과 행동은 물론, 계절·명절·기념일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매화·매실·백운산·이순신대교 등 광양의 고유 자원과 문화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품 규격은 360x360픽셀, 30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갖춘 투명한 배경의 2D PNG 파일이다.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돌이 디자인 매뉴얼의 외형·색상·비율 등 준수한 준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원본 도안(ai, psd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다. 작품은 이메일(gwangyangsi@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요강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내부 적격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개별 통보되며, 광양시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다. 시상은 최우수상 1점 100만 원, 우수상 1점 70만 원, 장려상 2점 각 50만 원으로, 총 4점에 대해 총상금 270만 원이 수여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매돌이는 지역 농특산물인 매실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왔다"며 "시민의 손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매돌이가 한층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시민과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 멋진 나를
더 크게 웃을 것
평범하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범한 것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